

Day6. Computational Thinking_6

전미정

Q. 기술적 부채(Technical Debt) 란 무엇인가?

A. 기술적 부채란? 빚을 진다는 의미의 부채(Debt)는 경제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1992년 Ward Cunningham이 기술적 부채(technical debt)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부채 역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술적 부채의 발생 요인 기술적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비지니스 조직으로 부터의 무리한 압박, 부정확한 요구 사항이나 잦은 변경, 잘못된 의사 결정 프로세스, 부족한 협업, 부족한 테스트, 부족한 문서화, Refactoring 지연, 낮은 수준의 아키텍처 설계.

기술적 부채의 문제점 기술적 부채는 구조적 악순환을 일으켜 품질 저하 및 고객 만족 감소를 증대시키고 이는 결국 수익감소로 이어지게된다. 기술적 부채가 지닌 대표적인 특징은 빌린 사람과 갚은 사람이 상이하다는 점인데, 빌린 사람은 처음으로 코딩을 작성한 사람이고, 갚아야하는 사람은 유지 보수 개발자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떠넘기기 식으로 넘어온 부채는 내부 불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에도 방해가 된다. 사실 기술적부채는 대한민국 SI(System Integration)산업의 현실이자 큰 문제점이다. 기술적 부채를 일으키는 요인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고부가가치기술은 개발되지 못하고, 개발자들은 개발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갑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개발을 하다보니 부채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발생한

부채를 수습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으니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기술적 부채를 대하는 태도 사실 부채가 항상 나쁜 것 만은 아니다. 금융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부채가 필요하듯이, 스케줄 진행상 필수 불가결하게 기술적 부채가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부채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에 상당한 융통성을 가져다 줄 수있다. 하지만 발생한 기술적 부채를 갚고, 방치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플랜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